박카스 신화 드디어 무너졌다!

2004년 매출 1520억원으로 3년째 급감 ... 비타500은 급성장

국내 드링크류의 대명사격인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3년째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동아제약은 2004년 박카스 매출을 집계한 결과 152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월11일 발표했다. 2002년 1981억원, 2003년 167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박카스에 맞서 드링크류 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500은 2002년 280억원에 머물렀던 매출이 2004년에는 9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66% 증가한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박카스의 매출이 줄어든데 대해 동아제약은 의약분업 이후 박카스를 판매하는 약국들이 대부분 병원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약국의 상당수가 건물의 2층 이상에 위치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2005년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2/15>